

다카이 오사무(高井修) 부지사 서울 방문 - 지사친서(親書) 전달

홋카이도와 서울특별시간의 우호교류를 위해 다카이(高井) 부지사가 5월 6-8일 (3일간) 서울을 방문해 다카하시 하루미(高橋はるみ) 지사의 친서(親書)를 직접 건네고, 사무 협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방문은 5월 8-9일 이틀 간에 걸친 「2010 지구촌 한마당 축제」에 홋카이도 아이누 민족 공연단이 초청된 것의 일환으로, 서울시와 홋카이도가 한층 더 상호이해와 교류 확대를 향한 우호관계가 확립되길 희망하고 있음을 전하고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부터 21년 전인 1989년 6월 홋카이도에서 처음으로 국제항공 노선인 삿포로-서울 구간이 취항을 시작해 현재 직행편이 매일 운항되고 있으며, 연간 25만명 이상의 도민과 시민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사진] 지사친서를 건네는 다카이 부지사(왼쪽)와 시장은 서울시 정무 부시장(오른쪽)

만약 인구 1천만명의 서울과 인구 560만명의 홋카이도 간에 우호교류가 이뤄진다면 인적 물적 교류가 증대되어 양 지역에 있어서는 물론 한일 양국에 있어서도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되는 바입니다.

홋카이도는 부산광역시와 2005년부터, 경상남도와는 2006년부터 우호교류를 시작해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롭게 서울특별시의 우호제휴를 계기로 동아시아와의 교류를 한층 더 확대해 나가고자, 추후 빠른 시일 안의 우호제휴를 목표로 높은 수준의 협의를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 홋카이도~서울 간 항공스케줄



- 서울(인천) ~ 삿포로(신치토세): 주 7편 (매일/대한항공)
- 서울(인천) ~ 하코다테: 주 3편 (화,목,일 / 대한항공)
- 서울(인천) ~ 아사히카와: 운휴중 (7월 1일-8월 29일 임시운항예정 / 아시아나항공)

2010 지구촌 한마당 - 시라오이 아이누 민족 공연단 참가

지난 5월 8-9일 이틀 동안 서울광장과 무교동 일대에서 국내 최대규모의 다문화축제인 '2010 서울 지구촌 한마당 축제'가 열렸습니다. 올해 15회째를 맞는 이 축제에 홋카이도에서도 시라오이(白老)의 아이누 민족 공연단이 처음으로 참가해 아이누 전통무용인 고식(古式)무용을 선보였습니다.

아이누 고식(古式)무용은 아이누 민족이 주요 축제나 가정행사 등에서 추는 춤으로, 예능과 생활이 밀접하게 맺어져 있는 것이 특징으로 현재 홋카이도내 17개 보호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중요무형민족문화재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날 공연단은 전통악기인 뭇쿠리와 돈코리란의 연주, 꿈의 영혼보내기 춤인 「이요만테리무세」를 선보여 서울 시민들로부터 열렬한 환호를 받았습니다



<사진>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등장하는 공연단

◆ 아이누 민족 전통악기 뭇쿠리, 돈코리란?



<뭇쿠리>

보통 5현의 현악기로 양손으로 쾅기듯이 연주합니다.

←<뭇쿠리>
입으로 연주하는 한 뿔 크기의 죽제품의 악기로, 왼손은 뿔에 고정시키고 오른손은 줄을 당기면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를 입의 공명으로 음색을 변화시켜 연주합니다.



돈코리란의 연주



<이요만테리무세> 자연의 모든 것에 신이 내려주신 혼이 있다고 여긴 아이누 민족이 신에게 감사하는 의식을 치르고 그 후 추는 춤인, 꿈의 영혼 보내기 춤으로 등글게 원을 만들어 추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라오이의 이모저모】

◇ 시라오이(白老) 지역의 개요
아이누어로 등애가 많은 곳이라는 의미의 <시라오이>로부터 지명 유래



- 【면적】 425.75 km²
- 【인구】 19,941 명(2009.12. 31. 기준)
- 【주요산업】 축산업, 제조업, 관광업
- 【기후】 8월 평균기온은 19.9도로 여름은 삿포로에 비해 선선합니다. 1월 평균기온은 -4.4 도로 겨울은 비교적 온난하지만 맑은 날이 많아서 삿포로나 오타루에 비해 추위가 매서워 1월 평균 최저 기온은 -9.4 도입니다. 여름에는 강수량이 많고, 겨울에는 적설량이 적은 편입니다.

☆시라오이에 온다면 이곳만은 꼭!

<아이누민족 박물관>

아이누 민족의 주거지를 그대로 복원 전시하여 그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엿볼 수 있습니다.

<인크라 폭포>

일본 폭포 100 선에 뽑혔으며, 높이가 약 43.9 미터, 폭은 약 10미터 정도입니다.

<굿타라코 호수(倶多楽湖)>

환경성이 발표한 2001년도 공공용수역수 질측정 결과 '호수 늘' 부문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인크라 폭포



굿타라코 호수

☆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먹거리!

<시라오이규(白老牛)>

시라오이는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검은소 생산지로, 시라오이규는 환상적인 마블링을 자랑하는 최고급 우육입니다.

<고조하마(虎杖浜) 명란젓>

시라오이 앞바다에서 잡힌 명태를 원료로 본고장에서 가공하였기에 그 맛이 더욱 뛰어납니다.



시라오이규



고조하마 명란젓

人 아이누란 일본에 사는 민족의 하나로 일본의 동북 지방, 러시아의 사할린, 쿠릴 열도 등지에 정착해 살던 소수민족입니다. 메이지(明治) 시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정부는 그때까지 에조지(蝦夷地)라고 부르던 곳을 지금의 '홋카이도'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식민정착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야마토 민족(일본민족)이 이주해 와서 살기 시작했는데, 아이누 민족이 먼저 살고 있었다는 의미로 '선주민족'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현재 아이누 인구는 2만 3000여명이라는 통계 조사 결과가 나와 있지만, 실제 인구는 수 배에서 수십 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현재 홋카이도 뿐만 아니라 혼슈, 시코쿠, 규슈 등 일본 각지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랑카랍데

아이누민족

アイヌ



言 아이누어는 아이누 민족의 고유 언어로 일본어와 비슷한 어순이지만 여러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본어와 다른 큰 특징으로, 동사에 '나'라든지 '당신' 등의 인칭을 붙이는 규칙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누어는 메이지(明治)시대 이후, 교육 현장에서 아이누어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일본어 사용을 강요당해 현재는 전통적인 의식이나 제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에서 아이누어를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누 민족은 아이누어를 지키고 전파해나가기 위해 아이누어 교실을 여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홋카이도 80% 이상의 지명이 아이누어에서 유래하는데, 이는 옛날 아이누 민족의 사고방식이나 생활을 아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누어 지명은 '다음 세대에 남기고 싶은 보물'로 2001년에 홋카이도 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衣 아이누 민족이 예전에 입던 의복은 난티나무 껍질이나 췌기풀 등의 섬유를 가공한 실로 만들었으며, 방한을 위해 동물의 모피나 물고기의 가죽 등을 사용했습니다. 그 후로는 혼슈와 추오쿠 지방에서 들어온 비단과 목면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형태는 기모노(和服)와



닮아 있으며, 기모노처럼 보통 왼쪽이 위로 오도록 겹쳐서 끈으로 묶지만 형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길이는 무릎보다 약간 내려오는 정도입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컬러풀한 자수 등의 문양을 입히는 것인데,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만이 아니라 부적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의복에는 외출복과 평상복이 있으며, 자료관이나 사진 등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문양이 들어간 의복의 대다수는 의식이나 축제에 입던 외출복입니다. 평상복은 보통 노동을 할 때 입었기 때문에 지금은 별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천을 짜는 모습

◆ 배워봐요~ 아이누어 인사말!

- 아랑카랍데 - 안녕하세요
- XXX 아리 쿠레헤안 - XXX 라고 합니다.
- 야야이라이케테 - 감사합니다

食

수렵 채집 민족이었던 아이누 민족은 자연의 혜택에 감사하면서 야산 동물과 식물을 식자재로 이용했습니다. 산에서는 사슴, 곰, 토끼 등의 털짐승과 오리 등의 새를 잡았으며, 가까운 강과 바다에서는 연어같은 물고기나 조개를 풍부하게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앞바다에 나가 고래, 바다사자, 바다표범 등의 해수를 잡기도 했습니다. 아이누 민족은 수백 종류의 식용식물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약간의 농경도 겸하고 있어 자유롭게 대자연 안에서 풍요로운 식생활을 했습니다.

<대표적 요리별>

산나물 등의 야채와 고기류를 삶아 소금, 그리고 동물이나 물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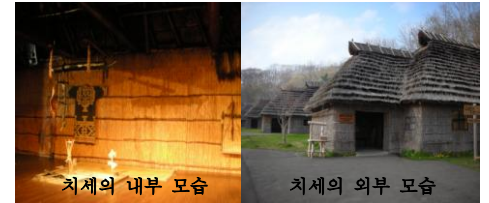
주식이었던 '체푸오하우'

의 기름으로 양념한 전골요리 '체프오하우'가 일반적이었으며, 그 밖에 육류와 연어 등의 꼬치구이와 산나물 무침도 만들어 먹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요리들이 일상적인지는 않고 의식이 있을 때 만듭니다.

住

치세라고 불리는 아이누 민족의 집은 모두 나무와 역새 등의 자연 재료를 이용해 포도 덩굴로 연결해 만들었습니다. 내부는 지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수납공간을 겸한 현관을 들어가면 중앙에 화로가 있고



치세의 내부 모습

치세의 외부 모습

그 양쪽에는 거실과 침실이 있으며, 가족과 손님에 앉는 장소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중요품을 놓는 곳이나 신(神)이 출입하는 창이 있었습니다.

고탄이라는 말은 마을을 의미하며, 큰 강의 근처나 강 어귀의 조금 높은 지대에 수십 채의 고탄이 모여 있었습니다. 고탄에는 식자재를 보존하는 창고와 새끼곰을 키우는 우리, 제단 등이 있었으며 공동의 시설로 물을 길는 곳, 선착장 등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고탄에서는 사슴·곰·토끼를 사냥을 하는 산, 연어나 작은 물고기를 잡는 강, 의복·돗자리·치세의 재료를 채취하는 곳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소는 '이오로'라고 하며, 다른 고탄의 이오로에 들어가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질서 정연한 사회생활은 고탄의 존장을 중심으로 지켜졌다고 합니다.

아이누 민족 박물관 http://www.ainu-museum.or.jp/nyumon/ainu_leaf1003/ainu_kr.pdf (한국어)

☆ 지금, 홋카이도는? **요사코이 소란 축제!**

- 일시 : 2010년 6월 9일~6월 13일(5일간)
- 장소 : 오도리 공원 일대 (삿포로역에서 도보 약 15분)



홋카이도에 사는 한 학생이 고치(高知)의 요사코이 축제에 참가했다가, 모두가 하나 되어 축제를 즐기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홋카이도에 돌아와 그와 같은 축제를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 요사코이 축제에 홋카이도 민요인 소란 가락을 곁들여 1992년 제 1회 '요사코이 소란 축제' 시작! 축제의 규모는 점점 커져 지금은 홋카이도민, 그리고 홋카이도를 방문하는 모든 이들의 커다란 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요사코이 소란 축제 공식 홈페이지 <http://www.yosakoi-soran.jp/>(일본어)



사진 제공 요사코이 소란 축제 조직위원회